

한우자조금의 성공만이 한우산업의 미래 보장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국한우협회의 순회교육이 올해는 한우 자조금대의원 선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한우자조금의 성공만이 한우 산업의 미래를 보장한다."를 주된 주제로 교육이 펼쳐졌다. 이번 교육에서 강의를 맡아주신 주요 강사의 자조금 및 한우사육 관련 강의내용을 간략히 요약한다.

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자조금 제도

충남대학교 박종수 교수

기나긴 한우 자조금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올 2004년을 한우 자조금의 원년으로 만들자. 한우농가가 정성을 다해 우수한 한우고기를 생산하는 것은 높은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서지만, 고급육을 생산한다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상황, 유통, 소비자의 구매욕구 등의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야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

이제는 고기를 생산하는 사람이 생산만 해서는 결코 경쟁력이 없다. 생산자가 시장, 유통, 소비자 관리 등 모든 요소에 관여 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이 자조금이다. 한우 농가들이 적지만 십시일반으로 모은 자조금을 통해 홍보와 교육 그리고 산업에 필요한 연구를 해야 한다.

자조금의 시작인 대의원선출 선거는 자조금을 운영하는 대의원을 뽑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농가가 자조금 거출에 동의한다는 더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자조금이 조성 되면 각종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유통감시 활동 지원, 한우연구 사업, 정책개발 등을 지원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한우 농가의 직접참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우리가 자조금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이다.



자조금의 설치와 운용

前양돈협회장 김건태

우리 축산업의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수입육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 소비자의 소비의식 또한 안전성, 청결, 고급화를 지향하는 성향으로 바뀌었다. 때문에 소비자의 기준에 맞는 생산, 유통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의 농업 정책이 변화하여 정책지원이 해마다 감소하는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 스스로 준비가 필요한 때에 여전히 주인 의식 없이 누군가 해 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

WTO, DDA협상 등 국내외의 변화와 개방 등으로 농업, 축산의 생산만으로는 한우 산업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스스로의 힘을 키우고 주인 역할을 찾는 길만이 살길이다.

폭우가 내려 큰 계곡물이 넘쳐 흐르는데 아직도 내집 앞 도랑을 만지고 있어야 되겠는가? 이처럼 자조금은 우리산업에 큰 계곡물과 같이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우인의 노력을 모으고자 하는 것이다.

한우산업의 전망과 고급육 생산기술

한우시험장 백봉현 장장

쇠고기 수입이 자유화된 국내시장상황에 4배나 비싼 한우 고기가 생산성 향상으로는 수입고기와 경쟁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품질을 고급화 하여 수입고기와 차별화 시켜야 한다

고급육 생산을 통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우수한 유전형질 둘째, 알맞은 사양 셋째, 출하 방법 결정을 따라야 한다.

발육단계 별로 체조직 발달이 다르며 육질과 육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육단계별로 합리적인 사양을 해야 하며 육성기에 소화기관, 내장, 뼈 등의 발육이 완료되고 근육 발달도 대부분 이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내장이나 뼈, 근육을 충분히 발육시켜야 비육이 잘 될 수 있는 밑소가 될 수 있다.

또한 고급육 생산과 송아지 생산 안정을 위해 거세는 필수이며 거세시기는 3~4개월령이 적당하다. 거세 방법에는 위생적인 준비와 시수령 대한 숙련도만 있다면 외과적 시술이 가장 효과적이다.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생육단계에 맞는 조사료급여는 체중과 육량, 육질등 도체 등급에

증가하기 때문에 특히 육성기 및 비육 전기에 필요한 TDN중 20~40%는 조사료에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미소가 기본적으로 우수한 형질을 가져야 한다. 공부 못하는 아버지가 공부 못하는 자식을 나무라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우량 밀소 선발은 중요하다.

꿀벌의 생봉독을 이용한 한우 사양

충북대학교 조성구 교수

히포크라테스에 의하여 치료기록이 전해질 정도로 오래된 봉독은 항생제의 1,200배의 항생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체내 잔류위험이 없다.

지금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만성관절염, 만성 염증의 통증 완화 등 인체시술을 목적으로 생봉독을 이용해왔기 때문에 가축의 치료에 사용하더라도 일반항생제와 달리 오남용에 있어서 안전하다.

봉독은 체내 면역을 증강시켜 설사, 관절염, 피부 및 외상, 거세 후 창상 감염을 예방 또는 치료한다. 분만우에 시술할 경우 출산 후 자궁내막염과 후산정체를 예방한다.

생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지는 것을 생각하면 생봉독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생제 대체물질의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브랜드 고유의 혈통 구축을 위한 한우개량 방향

한국종축개량협회 이종현 부장

한우 암소를 사육하는 양축농가는 누구든지 좋은 암소를 갖기 원하는데 좋은 암소는 무엇이며 고능력 암소는 무엇인가?

암소의 능력은 용도에 관계 없이 항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중 번식·포육에 관계하는 능력과 생산 효율에 관계하는 능력이 있다.

모든 능력이 다 좋을 수 없지만 암소를 보유하거나 도태할 경우 위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것이 좋은 암소 확보 방법이다.



또한 혈통, 고등 등록우 등록이 되어있으면 향후 송아지 생산시 송아지의 능력도 파악 할 수 있으며 체형, 외모 심사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초음파 촬영도실 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암소를 확보하는데 참고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며 등록우의 거래를 일반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번식우 농가는 우선 자기가 기르는 소의 상태를 파악해야 앞으로 태어날 송아지에 대해 어떤 목적으로 사육할 지에 따라 개량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

고급육 생산을 목적으로 송아지를 생산하는 만큼 우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에 대한 기본 정보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한우사육농가에서는 한우를 등록만 하면 저절로 개량이 되는 줄 알고 있으나 등록을 하는 것은 혈통을 정확하게 기록하고자 함이며 이러한 기록에 의하여 현재의 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어떻게 개량을 할 것인가 계획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다.

고급육생산을 위한 한우브랜드육 사양관리 프로그램

건국대학교 김종민 박사

고급육생산에 필요한 사양 방법은 정해진 것이 없다.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고급육 사양 기술은 표준이 될 수 없다. 단지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는 거세와 육성단계를 명확히 하여 사육하는 것이 방법이다. 육성기는 소화기관과 근육발달이 왕성한 시기이므로 고단백 저열량사료를 급여하여 과다한 불가식 지방 축적을 억제 시켜야 한다. 특히 양질의 조사료를 급여하여 충분히 반추위를 발달시키는 것이 건강하고 튼튼한 밑소를 생산하는 방법이다.

농후사료 과급시 불가식 지방이 증가하여 육량이 낮아져 육량등급이 낮은 원인이 된다. 반면 지나친 조사료 위주 사양은 비육후기에 육량이 적어 손해를 볼 수 있다. 한우의 경우 비육 중기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부족한데 이 시기는 비육전기에서 후기로 가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근간지방과 피하지방 등의 불가식 지방의 급격한 증가를 예방하는 시기이다. 비육 후기에는 근육내 지방이 부착되는 시기로서 육질이 마무리 되는 시기이다.

한우 브랜드육목표는 체중을 최대화 하며 육량과 육질등급을 높여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첫째, 소 자체의 잠재적인 유전능력 둘째, 주위환경에 알맞은 사양관리 셋째, 사료의 질과 양이 중요하다.

한우개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방안

한경대 동물생명지원학과 이득환 교수

한우가 육우로서 정착된 후 최근 한우가격 상승으로 전업으로 사육하는 농가수와 사육 두수가 크게 증가하는 한우 산업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급육 생산이며, 고급육 생산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전제 조건은 개량이다.

개량을 통해 우수한 자질의 밀소를 선발하여 고급육을 생산할 경우 일반적으로 1+등급과 3등급간의 가격차이가 kg당 약 6,000원의 차이를 보인다. 이를 도체중량 300kg으로 환산할 경우 두당 경매 가격의 차이는 1,800천원이다. 이처럼 한우산업 역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다.

현재 가축개량사업소의 종모우는 우리나라에 각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한우와 동일한 품종으로서 다만 유전적으로 우수성을 검증 받은 것 뿐이지 최고는 아니다. 농가에서 이보다 더 우수한 형질의 종모우가 정액을 생산할 경우 농가중심의 개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소득 증대될 수 있다. 다만 아직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외국의 사례를 살펴볼 경우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제는 한우 농가 스스로 우수한 암소를 육성하고 더 나아가 종모우를 선발하여 농가 이익을 위한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더불어 한우 농가 스스로 혈통등록과 자료 조사에 적극참여 하여 농가에 소들의 유전능력평가와 선발교배를 가능하도록 하는데 농가가 기여해야 한다.

안내 말씀

우리협회에서 애드바이오텍과 협약하여 회원농가에게 공급하고 있는 설사예방을 위한 「아이지-드링크」의 사용 후 보관 및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11월1일부터 **100ml/2두분(360,000원)을 50ml/1두분(180,000원)으로** 소 포장하여 농가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BOX의 포장수량은 기존 15병으로 동일합니다.

BOX단위 신청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